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 설송소식

2020년 11월 제249호 http://cnmhs.net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코로나 딛고 개최, 전통 이었다"

### 유경상 추진위원장 등 똘똘 뭉쳐 11월 21일 선후배 격려 속 유종의 미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가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유성계룡스파텔 1층 무궁화홀에서 모교 황의만 교장과 정찬목 모교교사(12회), 박대용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임원, 최동준 21회동문회장, 박종철 23회동문회장, 김형찬 24회동문회장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25회 동문들은 행사장에는 모시지는 못했지만 모교 강용구 최병원 김인형 유병춘 김종무 한용동 노성균 이승기 정의동 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을 거쳐 조촐하게 개최되어 모교 동문회 역사를 이어나갔다.

유경상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장(25회 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참석해 주고 협조해준 친구들과 행사가 열리도록 도와주신 총동문회와 동문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천명의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30년 세월을 회상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감개무량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박대용 총동문회장과 황의만 모교교장,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의장(22회)의 축사가 있었다.

25회 동문들은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성사시킨 유경상 추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관련기사 2면>

충기 25회 동문들이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전통을 계승했다.

25회 동문들은 총동문회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 후배들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유경상 추진위원장은 26회 강용규 동문(계룡시의회 부의장)에게 졸업30주년기념행사기를 인계했다.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유경상 ▲사무국장 홍준용 ▲재무국장 김영도 ▲감사 안승락 ▲추진위원 이계춘 김광석 신장식 허영준

※25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후원
▲총동문회 30만원 ▲23회동문회 50만원 ▲24회동문회 100만 ▲26회동문회 100만원 ▲충기FC회원일동 20만원 ▲테크노충우회 30만원 ▲최동준(21회) 100만원 ▲하헌영(23회) 10만원 ▲권건오(23회) 20만원 ▲최승호(23회) 50만원 ▲최병무(23회) 50만원

※25회
▲유경상 500만원 ▲홍준용 100만원 ▲김영도 100만원 ▲안승락 100만원 ▲김인문 100만원 ▲김광석 100만원 ▲신장식 100만원 ▲이순만 100만원 ▲강대성 20만원 ▲유정재 10만원 ▲이계춘 20만원 ▲한관용 60만원 ▲송은택 50만원 ▲조한호 10만원 ▲박윤희 50만원 ▲김규섭 10만원 ▲박상수 50만원 ▲김동주 20만원 ▲안중용 10만원 ▲강풍원 20만원 ▲최장희 10만원 ▲허영준 50만원 ▲김기환 10만원 ▲송수용 10만원 ▲최정덕 10만원

-신 도 성 편집위원-

## 모교팀, 출전 2년만에 전국고교동창골프 공동3위 달성

### 2020키움증권배 동문들 성원 힘입어 강호 연파, 장학금 500만원 획득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골프팀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11월 3일(화요일) 열린 2020 키움증권배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통합 준결승전에서 강호 김천 성의고에게 져 공동 3위에 그쳤다. 김천 성의고는 11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공고를 꺾고 제16회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에서 우승했다.

모교팀은 11월 3일 오후 2시 50분에 시작되어 4시 30분에 끝난 블루원상주골프장에서 열린 SBS배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이미 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4강에 진출한 바 있는 성의고에게 져 우승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교팀은 공동 3위 상금 500만원을 획득하여 모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동문들은 바쁜 일정에도 상주골프장에 와 응원을 보냈다. 한흥교 총동문회사무총장이 시합 전에 선수단에게 박대용 총동문회장의 격려금을 전달했고, 박기영 12회 동문이 경기 후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상주 고향산천 식당에서 열린 저녁식사에서는 허영준 선수단장이 선수단의 뜻을 모아 최동준 총동문회 재무국장에게 총동문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모교 골프팀은 지난해 고교동창골 프대회에 출전하여 하반기대회 8강까지 올랐고, 올해 상반기 대회에 출전하여 통합 4강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모교팀은 전종현 단장

우리 동문골프팀이 선전을 거듭한 끝에 공동3위라는 업적을 쌓았다.

(12회)의 집념 아래 똘똘 뭉쳐 주장 허영준(25회)선수의 결정적인 활약과 '행운의 사나이' 이문휘(27회) 선수의 선전에다가 올해 합류한 차서백(22회) 선수가 몫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기사 3면 계속>

# 모교 주변 34층 아파트 건설 교육청에서 승인, 동문들 크게 반발

## “누구를 위한 승인인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강력 투쟁 천명

대전시교육청이 문화동8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승인하자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항의방문했다.

충남기계공고 학교 뒤편 인접한 보문산 전경이 바라보이는 동네에 34층 초고층의 아파트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어 총동문회와 학부모 등 충기교육가족들이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 12명)가 11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문들은 시교육청의 심의 결과에 크게 반발하여 11월 23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설동호 교육감과 면담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심의결과는 “승인”으로 결정됐고. 권고사항으로 “태양광 반사시스템 설치여부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최종확정하고,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비를 학교측이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본관동, 기숙사동, 실습동 9동, 10동) -현재 제시된 감축세대수(면적)만큼 축소하되 제시된 안보다 추가 일조권 확보 방안이 있는 경우 개선안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말 그대로 권고사항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설을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23일 설동호 교육감을 항의 차 만난 동문 7명(이종호 대전시의원, 언론인, 변호사 등) 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아파트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 박동일 충기언론인회부회장 –

# 25회 졸업 30주년기념행사(화보)

행사에 앞서 등록

내빈석

친구야 어떻게 지냈니

친구야 반갑다

국기에 대해 경례

유경상 추진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총동문회 발전기금

후배들에게 장학금

26회 후배들에게 졸업30주년기념기 인계

유경상 위원장 인사

유경상 위원장 등 추진위원들

마스크 쓴채로 음식 담아

# "전국 156개 출전팀 중 4강 진출 대단한 업적이다"

## 충기팀 2020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공동 3위 달성 의미

전종현 단장을 중심으로 모교골프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하면서 올해 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 우리 선수단은 지난 4월부터 주말마다 더우나 비가 오나 모여서 훈련을 거듭했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준결승 경기 전에 2박3일 합숙 강훈련을 했고, 시합 당일도 영상 2도에 강풍이 부는 차가운 날씨에도 새벽 라운딩으로 채찍하면서 승리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지만 우승까지는 가지 못 했다.

준결승에서 만난 김천 성의고는 상주골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팀으로 거의 상주에서 살다시피 하며 훈련에 매진한 팀이다. 게다가 김천 성의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4강의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 와신상담한 팀이다. 김천 성의고는 올해 새로운 젊은 선수 영입과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16회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해 숙원을 풀었다.

성의고와 경기를 마치고 나온 우리 선수들은 한결같이 "상대팀 실력이 너무 탄탄하여 실수가 없다"며 "오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전종현 단장은 "꼭 우승하여 충남기계공고의 위상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우리 선수단의 마음을 헤아려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뜨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처음 대회에 출전하면서 전종현 단장의 대회 출전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며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응원단이 대거 오지 못하게 되어 비용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모교팀이 사용한 비용은 골프장 라운딩, 장비, 의상비 등 모두 2280만원이 소요되었다. 긍정적인 것은 모교 동문골프팀이 선전을 펼치자 동문들의 후원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올해 16회 대회 골프 후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동문회 100만원 ▲박대용 총동문회장 100만원 ▲설송회 200만원 ▲김병무 설송회장 100만원 ▲12회동문회 100만원 ▲임정규 12회 동문회장 50만원(식사 2회) ▲충남서천군민회 100만원 ▲염태대(8회) 백제cc 연습라운딩 120만원 상당 지원 ▲최동준 21회동문회장 200만원 ▲백두현(13회) 200만원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은 모교의 명예를 건 팀 대항전으로서 고교 동문 간의 화합과 승부를 그린 SBS골프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답게 올해 총 156개 고등학교 동문이 참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8강을 가린 뒤 통합 8강과 4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6개 팀 중에 4강안에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텔레비전에서 충남기계공고를 알린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

– 신 도 성 편집위원 –

모교팀 선수들이 준결승 경기에 앞서 성의고 선수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경기 전 박대용 총동문회장의 격려금을 한흥교 사무 총장이 전달했다.

저녁식사시간에 선수단이 총동문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1면에서 계속

지난 10월 26일 통합8강전 경기는 녹화되어 12월 15일(화요일) 밤 10시 30분 SBS골프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11월 3일 준결승 경기는 내년(2021년) 1월 5일(화요일) 밤 10시 SBS골프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2004년 첫 방송 이래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고교동창골프최강전은 모교의 명예를 건 팀 대항전이다.

전종현 단장과 허영준 주장, 차서백. 이문휘 선수는 11월 3일 경기 후 동문들과 같이한 저녁 식사에서 소감을 밝혔다. 전종현 단장은 "참으로 아쉽다"며 "충기인의 명예를 걸고 우승할 때 까지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신 도 성 편집위원 –

## "2020전국고교동창골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길 위에 쌓이는 초겨울 입구에서 2020키움증권배SBS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준결승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아쉽게 3위에 머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성원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했던 올해 대회에서 꼭 우승하여 충남기계공고의 위상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우리 선수단의 마음을 헤아려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뜨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준결승에서의 아쉬운 패배는 선수단장인 저의 과욕의 결과임을 통감했습니다. 단기간에 우승해보려던 지나친 승부욕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아 반성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지난 4월부터 주말마다 더우나 비가 오나 모여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준결승 경기 전에 2박3일 합숙 강훈련을 했고, 시합 당일도 영상 2도에 강풍이 부는 차가운 날씨에도 새벽 라운딩으로 채찍 했던 것이 선수들을 정상 컨디션으로 이끌지 못한 것 같아 후회합니다.

패배 후 돌아오면서 쓰라린 심정 속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우승기를 모교에 가져올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선수단의 훈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대용 총동문회장님과 한흥교 사무총장, 설송회 회장님과 회원들, 염태대 8회 선배님, 12회 임정규 회장님과 회원들, 박기영, 정찬목 동문, 13회 백두현 동문, 21회 최동준 동문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멀리 취재 온 신도성 선배님 고맙습니다. 기필코 우승하여 충남기계공고의 이름이 고교동창골프대회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충남기계공고동문골프팀**

**단장 전종현 올림**

# 한국과 친밀한 바이든 미국대통령, 충기 동문과도 소중한 인연

## 2013년 부통령으로 한국방문 시 이천구 동문 경찰기동대로 에스코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2013년 12월 6일에는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2박3일간 방문하여 전방시찰 등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이 당시 이천구 동문(13회)이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부대장에 재임하면서 에스코트를 한 인연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튼에서 태어났다.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나이는 만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50대라는 점에서 '고령 대통령'을 상쇄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1950년대 불황이 오자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떠나 델라웨어주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61년 델라웨어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이후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로 진학했다. 로스쿨 재학중인 1966년에 네일리어 헌터를 만나 결혼하고 둘 사이에 2남 1녀를 뒀다.

바이든은 1969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가 돈 많은 자의 편에서 변호하는 데 회의를 느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970년 11월 뉴캐슬 카운티의 카운티의회 의원이 됐다. 1972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시 정치 거물 케일럽 보그스를 대역전극으로 꺾고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어린 상원의원이 됐다. 20대 신예가 26년 동안 한 번도 진 적 없는 베테랑 정치인을 꺾으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18일에 아내와 장녀가 사망하고 두 아들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들의 병실에서 상원의원 취임선서를 하기도 했다. 이후 1977년 질 바이든 교수와 재혼했다. 이 결혼은 질 바이든 교수에게도 재혼이다. 질 바이든 교수는 20여 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델라웨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5년간 영어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의원에 당선한 뒤 내리 6선에 성공하며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대표 정치인으로 법사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지내며 공화당 의원들과 협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8년 동안 부통령직을 수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러 차례 유세 연설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을 적극 지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혈맹',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한 마음을 종종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의원 시절 한국에 우호적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도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1998년 11월에 상원 외교위 민주당측 간사 자격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2001년 8월에는 상원의원 3명과 함께 방한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오찬 도중 서로 넥타이를 바꿔 맨 일화는 유명하다.

2013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2박3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천구 동문이 에스코트하여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2015년 7월에는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인 질 바이든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통령 부인(세컨드 레이디)의 한국 방문은 바이든 교수가 처음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소송 등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하면 2021년 1월20일 취임식 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첫 행보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기후위기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실제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약 224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바이든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 대응을 예고하여 지구촌 식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일부 언론 기사 발췌>

이천구 동문이 2013년 당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에스코트했다.

## "바이든 모시면서 따뜻한 인간미 느꼈어요"

### 경찰 35년 근무 총경 퇴직 이천구 동문

이천구 동문(13회)은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출생하여 태평초등학교와 중도중학(현재 계룡중)을 나와 모교 기계과에 입학했다. 1978년 1월 모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2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 군대 생활을 마친 후 1982년 9월 제대했다.

이 동문은 제대 후 뜻한 바 있어 경찰에 도전 1984년 3월 국립경찰시험을 거쳐 청와대101경비단 요원으로 경찰에 투신하여 2019년 4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총경으로 퇴직할 때까지 총 35년 2개월을 국가를 위해 봉직했다.

이천구 동문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부대장 재임 시 총 54개국 정상을 기동 경호하는 대장으로 근무하였고, 18대 대통령 당선인을 69일 간 호위하는 기동경호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 2013년 12월 6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에스코트를 맡아 친분을 쌓았다. 이 동문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로마교황 등 54개 국 정상의 방한 시에도 기동 경호의 책임을 맡았다.

이천구 동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상에 대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땡큐라고 다정하게 말하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 동문과 고교 시절을 보낸 김산영 13회동문회장은 "천구는 다재다능하고 항상 활력이 넘치는 멋진 친구였다"며 "고교시절 한 밭체육관에서 복싱도 하고 성악에도 심취하여 노래도 잘 불러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천구 동문은 경찰 퇴직 후에도 활동을 쉬지 않고 인생2모작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법무 법인 서울의 고문과 공무원공상유공자회 재해정책본부장,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 (KOVA) 고문, 전국행정사, 대한탐정협회 이사, 아세아인재개발원 교수 등을 맡아 분주하다. 또한 자기개발 공부에도 주력하여 내년 1월 세종대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천구 동문은 "경찰 생활에 전념하느라 사회에서 못다 한 경영학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싶다"며 "내년에 코로나가 잡혀서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면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로마교황과 기념촬영

이천구 교통순찰대 부대장

# “더도 말고 13회 동문들만 같아라, 코로나로 힘든 총동문회에 큰 힘”

## 13회 일삼회 11월 13일 모임에서 발전기금 대거 모아 전달, 선후배에 귀감

충남기계공고 동문회가 여러 차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각종 행사를 비롯해 동문 역사를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동문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사태로 총동문회의 한 해 최대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가 연기되어 재정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동문들의 협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13회 동문 모임인 일삼회(회장 김산영) 동문들이 발전기금 275만원을 모아 총동문회에 전달했다.

13회 동문들은 11월 13일 충기제13회 졸업생의 우정을 담아내는 동창생모임 날,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우렁쌈밥식당에서 모여, 여러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김희준 동문의 아들결혼식 답례 인사와 금일봉도 받았다.

이날 13회 동문회 모임에서는 총동문회 재정 도움을 위해 셀프 개별 모금을 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13회 체육대회 참가비를 50만원 내기로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13회동문회는 총동문회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김산영 회장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동문회 재정 셀프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며 “특히 모교가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소로 지정되어 많은 혁신적 변화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전문컨설팅(주)세계 대표 강영권 친구(공학박사)가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모교와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며 “아무쪼록 코로나시대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13회 동문회는 당초 12월 송년모임을 12월 11일(금) 개최하고, 제3회 송년 당구대회는 12월 31일(목) 각각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11월 20일 준비단 회의에서 올해 연말 행사 모두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황규성 편집위원(13회) –

# “비대면 세상 속, 숨통을 트고 싶었다”

## 경기북부동문회 번개팅 제주 1박2일 여행

11월 7일 토요일 아침 7시 길을 나섰다. 일주일 전 경기북부동문회 임원진 카톡방에서 번개팅 한번 하자고 한 발걸음이 제주도 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전날 개통한 문산 서울 고속도로를 따라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세상이 엄청 빨라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소위 언택트(비대면) 시대다.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 나만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한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좀 덜하고 살면 어떨까하고도 생각했다. 근심 걱정도 덜하고 일도 좀 덜하고 천천히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떠오른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매주 주말이면 떠나고 있다. 큰 맘 먹고 차 한대를 장만했다. 여럿이 멀리가기엔 안성맞춤이다. 좋은 차 만드는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송석진 친구가 고맙다.

최북단의 경기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탐라국 제주에 오니 모두들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게 바로 힐링인가 보다. 숙소는 우리 16회 조성민 동문이 운영하는 미르빌펜션리조트로 했다. 우리 동문들에게 명소가 된 미르빌펜션리조트는 동문회보 설송소식의 앞면에 주소와 연락처가 있다. 조성민 동문은 멀리서 동문들이 오셨다고 혜택은 물론 맛난 제주도 금귤을 듬뿍 넣어 주신다. 탐라국 제주에서 번개팅으로 시작된 동문간의 우정은 1박 2일간 멋진 추억을 남기고 귀가길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 임동현 경기북부동문회 총무국장 –

# 호국영령 숨결따라 현충원 둘레길 탐방

## 대전동문회 11월 월례회 트레킹 겸해

대전동문회(회장 전상록)는 11월 7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관내 보라길 및 쪽빛길을 산책하면서 늦가을 속에 선후배가 한마음 즐기기 월례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통편은 자율적으로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 삼삼오오 도착했다. 인원 파악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답사코스를 향해서 출발하여 개울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산책길을 따라 늦가을 풍경에 흠뻑 젖었다.

이날 동문들은 현충원 경내 길을 따라 걸으면서 호국영령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걷던 중, 마중 나온 사슴들을 대면하는 행운도 누렸다. 둘레길 탐방 후 점심시간에 맛난 음식과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소통으로 하나 되는 토요일 소풍을 마무리하였다.

– 황규성 편집위원(13회) –

# “세월무상…모교 2021학년도 신입생 가까스레 정원 채워”

## 신입생 특별전형 원서접수 결과, 중학생수 · 공고지원자 줄어 향후 대책 절실

■. 모집학과 및 정원(주간, 남자) 공통사항

| 구분 \ 학과 | CNC선반과 | CNC밀링과 | 산업설비과 | 금형과 | 기계설계과 | 전기과 | 전자기계과 | 합계 |
|---|---|---|---|---|---|---|---|---|
| 학 급 수 | 2 | 2 | 2 | 2 | 2 | 2 | 2 | 14 |
| 전체모집정원 | 36 | 36 | 36 | 36 | 36 | 36 | 36 | 252 |
| 특별전형 | 32 | 32 | 34 | 32 | 34 | 34 | 34 | 232 |
| 일반전형 | 4 | 4 | 2 | 4 | 2 | 2 | 2 | 20 |

모교 2021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가 11. 16(월)~17(화) 2일간 진행되었다. 모집학과 및 정원은 위의 표와 같이 예전에 비해 정원수가 급감했다.

모교는 특별전형 학생 232명 모집을 위해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3개월 전부터 모든 선생님이 담당중학교에 홍보를 3회 이상 다녔고,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232명 정원은 채웠으나 갈수록 중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욱 고민이 된다. 보건, 조리, 뷰티 등 가사계열의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선호하여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공업계고등학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급감하여 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모교 교직원들은 내년도 입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정재균 교무부장은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학과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만 교장은 “중부권 최고의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모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은 물론 동문들까지 합심하여 좋은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 모교 교사)–

# “40년 타향살이 서로 의지하면 살았소”

## 창원 12회친구들 1박2일 일상탈출여행

경남 창원지역 12회 친구들은 김만옥 회장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가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창원에서 고교졸업 후 40여 년간 함께 하며 다져온 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의지되는 친구들이기에 건강을 지켜가며 늦가을 코로나19로 일그러진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났다.

방콕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쉬워 12회 친구들은 11월 7, 8일 주말을 맞아 1박2일로 전남 여수와 고흥 일원을 여행하면서 그동안 못다 나누었던 일상사를 공유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현재 창원동문회는 약 80명의 동문들이 가입하여 있고 12회 이영관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어 타향에서 고교 동문들이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1박2일의 여행을 마친 12회 친구들은 앞으로 모교와 고향에 애정어린 마음도 갖겠다고 다짐했다.

– 김만옥 창원 12회모임 회장 –

# “일년 만에 만나는 친구여 반갑다”

## 12회 11,12,13반 반창회 “내년에는 자주 만나세”

언제나 만나면 즐겁고 웃을 수 있는 12회 3학년 11,12,13반 친구들이 일년 만에 11월 7일 만추의 계절에 자리를 함께 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에 갇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문득 떠오르는 옛 추억의 우정들이 보고 싶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일까. 세월의 무상함을 가을의 단풍이 그리는 풍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모임을 추진했다.

25명이 참석하여 점심을 들고 호국영령이 잠드신 유성 현충원 둘레길을 걸으며 국가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명상하며 60대 나이에 걸맞게 철학자가 되었다. 저녁에는 만년동 명장복집에서 곡차를 들며 추억어린 학창시절의 이야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이슈, 자녀 혼사, 노후의 삶과 건강 등을 주제로 소소한 정을 나누었다.

임정규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모임 말미에 모교 총동문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임에서 50만원을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내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동문 사랑을 가슴속에 담았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주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정겨운 모임을 마쳤다.

– 조창준 12회11,12,13반 총무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 편집실 ☎(042)252-5656**

# 수입 현황

기간 : 2020년 10월 28일 ~ 11월 24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 연회비 및 발전기금

| | | | |
|---|---|---|---|
| 전 | 3 | 이우정 | 20,000 |
| 전 | 9 | 임세환 (고문) | 1,000,000 |
| 전 | 13 | 정성태 | 300,000 |
| 기 | 14 | 박천관 | 100,000 |
| 기 | 14 | 송수헌 | 50,000 |
| 기 | 14 | 이황훈 | 50,000 |
| 기 | 14 | 한경환 | 20,000 |
| 기 | 15 | 양병창 | 20,000 |
| 기 | 16 | 김석래 | 20,000 |
| 기 | 16 | 박대용 | 1,000,000 |
| 기 | 16 | 오선균 | 50,000 |
| 기 | 16 | 윤석길 | 20,000 |
| 기 | 16 | 이계천 | 20,000 |
| 기 | 16 | 이언구 | 50,000 |
| 기 | 16 | 이재흥 | 20,000 |
| 기 | 16 | 이진구 | 20,000 |
| 기 | 16 | 전재진 | 20,000 |
| 금 | 17 | 민영삼 | 30,000 |
| 기 | 20 | 구용환 | 20,000 |
| 기 | 27 | 이문휘 | 100,000 |
| 기 | 33 | 이재상 | 20,000 |

### 단체

| | |
|---|---|
| 철송회(철도공사동문회) | 500,000 |
| 12회동문회(11, 12, 13반모임) | 500,000 |
| 고교동창골프선수단 (전종현,차서백,허영준,이문휘) | 1,000,000 |

## 일삼회 발전기금

| | | | |
|---|---|---|---|
| 기 | 13 | 강영권 | 1,000,000 |
| 기 | 13 | 권연호 | 100,000 |
| 기 | 13 | 김광시 | 100,000 |
| 기 | 13 | 김산영 | 100,000 |
| 기 | 13 | 김학경 | 100,000 |
| 기 | 13 | 노영삼 | 100,000 |
| 기 | 13 | 도중갑 | 100,000 |
| 기 | 13 | 문행모 | 100,000 |
| 기 | 13 | 백두현 | 100,000 |
| 기 | 13 | 유병덕 | 100,000 |
| 기 | 13 | 이현철 | 100,000 |
| 기 | 13 | 홍구표 | 50,000 |
| 기 | 13 | 황규성 | 100,000 |
| 기 | 13 | 황순찬 | 100,000 |
| 일삼회동문일동 | | | 500,000 |

## 기룡전기(주) 충기동문일동

| | | | |
|---|---|---|---|
| 자 | 2 | 오상진 | 50,000 |
| 광 | 3 | 서한수 | 50,000 |
| 광 | 3 | 오선웅 | 50,000 |
| 전 | 3 | 이우정 | 50,000 |
| 전 | 7 | 민병학 | 50,000 |
| 전 | 8 | 이재범 | 50,000 |
| 광 | 8 | 이돈섭 | 50,000 |
| 전 | 8 | 이현두 | 50,000 |
| 전 | 11 | 황인호 | 50,000 |
| 기 | 13 | 강현용 | 50,000 |
| 기 | 13 | 신상우 | 50,000 |
| 전 | 15 | 이정원 | 100,000 |
| 전 | 23 | 이남희 | 50,000 |
| 기 | 28 | 변영환 | 50,000 |
| 기 | 37 | 유용주 | 50,000 |
| 전자 | 43 | 전알렉산더 | 50,000 |
| 설비 | 51 | 손홍구 | 50,000 |

## 회보 광고비

| | | | |
|---|---|---|---|
| 광 | 10 | 윤여갑 | 650,000 |
| 전 | 18 | 마수용 | 200,000 |
| 기 | 18 | 박종용 | 50,000 |
| 금 | 18 | 유병각 | 50,000 |
| 기 | 18 | 장영옥 | 50.000 |
| 기 | 18 | 장영우 | 100,000 |

# "모교 덕분에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

## 기룡전기 동문들 코로나로 어려운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보내와

기룡전기는 해마다 이중선(36회) 대표이사가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룡전기에는 이중선 대표가 선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2대째 전기공사를 담당하며 발전한 회사이다.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룡전기에는 선후배동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모교 3회 이우정 회장과 서한수 부회장을 비롯하여 2회 선배부터 51회 후배까지 수 십 명의 동문이 기룡전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기룡전기 동문들은 모교 총동문체육대회를 비롯해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열리지 못해 총동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해 총동문회에 보내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북방장학금으로 유학 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교에서 수학하고 충남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한 전알렉산더(모교 43회) 동문은 기룡전기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 중이다.

전알렉산더 동문은 "모교 덕분에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모교 총동문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미력하나마 성의를 표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모금에는 2회 오상진(자동차과) 선배부터, 3회 이우정(전기과) 서한수(광산과) 오선웅(광산과), 7회 민병학(전기과), 8회 이재범(전기과) 이돈섭(광산과) 이현두(전기과), 11회 황인호(전기과), 13회 강현용(기계과), 신상우(기계과), 15회 이정원(전기과), 23회 이남희(전기과), 28회 변영환(기계과), 37회 유용주(기계과), 43회 전알렉산더(전자기계과), 51회 손홍구(산업설비과) 동문까지 동참했다.

# "산불 피해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

## 김정훈 동문(22회) 소방의 날 장관상 수상

김정훈 동문(22회. 의용소방대 기성지역대장)이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서부소방서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올해로 3년째 기성동 의용소방대장을 맡아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 동문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출신으로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기성농협 앞에서 흑석고을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장묘사업을 하고 있다. 김정훈 동문은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이 산불이 나면 모두 불을 끄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며 "순간의 실수로 불이 날 경우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즉각 출동하여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 도 성 편집위원 –

##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 이름값하는 조가네 갑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종 용(18회)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 UMBRO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유 병 각(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 크라운출장뷔페
CROWN
대표 이희범 (동문 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 한 국 기 계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 DAWON (주)다원엘리베이터
DAWON ELEVATOR CO., LTD.
기술이사 안 치 홍(19회)
TEL. (043) 266-1215 FAX. (043) 266-1217
Mobile. 010-6404-0120 Http://엘리베이터제작.한국
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24번길 12-11 하나빌딩
사회적책임 경영품질부문 대상 조달청등록기업, ISO인증기업
승객용, 화물용, 리프트 제작설치, 리-모델링(교체공사)전문기업

## (주)세진크랭크
30년간 오직 Crankshaft가공에 매진해온 국내 최고의 Crankshaft가공 전문기업
대표이사 전종헌(12회)

## "부모님같이 정성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화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3번15(1층)
☎ 042)638-8828
핸드폰 010-8805-8051
원장: 안도경(이상돈 16회 동문 부인)
중풍, 치매, 뇌졸중 등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강관리

##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 금산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 税務法人 마스 유성지점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대표세무사
마 수 용(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 기장대리 / 불복청구 / 세무조사 / 양도 상속 증여

## *동문회 운영에 협찬 광고가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동문 업체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매월 1만부 발행하는 동문회보는 해외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발송되어 광고 효과가 좋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 디자인부터 제작, 납품을 한번에~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 www.yjds.kr에서 구경하세요.
예진커뮤니케이션은 최첨단 설비시설과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작,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컬러박스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From designing to production (주)예진커뮤니케이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955번길 34-63
제작문의 031 957-2829
팀장 우상철(26회) 010-4727-2060